

6 오피니언

사설

구성원 대표, 권한과 함께 '의무' 다하길

총장 선임방식이 확정됐다. 법인이 발표한 최종안은 처음 내놓은 A, B, C 가안 중 C안을 확대 보완한 모습이다. 대학평의회(대평의)에서 구성원 대표단이 대안으로 제시한 D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확정된 선임제가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대표단이 본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확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단체별 구성원 대표가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듯하다. 구성원 대표단은 본인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함께 구성원 목소리를 제대로 전할 '의무'도 부여받았지만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 대표단은 구성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D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려 노력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애초에 논의를 시작한 시기 자체부터 구성원 대표단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 구성원 대표단은 올해 6월부터 총장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서울캠퍼스 이재백 총학생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구성원 대표단 모두가 자신의 입장과 대표하고 있는 집단의 의견만 계속해서 되풀이할 뿐, 그 누구도 대승적 논의의 시작을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선 16대 총장선임 과정만 보더라도 적어도 올해 초부터 구성원끼리 논의를 시작해야 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구성원 대표단은 "이사회에서 내려온 안이 없으니 우리가 먼저 논의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구성원

대표단이 유의미한 자리를 가진 것은 대평의 한 번과 대학교 함께한 구성원 대표단 간담회 한 번이 전부였다. 특히 지난달 23일 개최된 구성원 간담회는 법인에 구성원 의견을 전달하기 이전에 갖는 중요한 회의였지만 회의 결과가 구성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내포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간담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이뤄졌고 종료됐다.

대평의 김도균 의장은 구성원 전체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다. 간담화와 관련해 우리 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이를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인터뷰가 달았으나 이미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제를 확정된 뒤였다. 국제캠퍼스 문정식 총학생회장은 두 번의 대표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제캠퍼스 구성원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결과를 내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비중을 두었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제17대 총장선임 방식은 확정됐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대표단이 보인 행동들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방식이 확정됐다고 구성원 대표단의 일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방식 안에서도 속의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구성원 추천 전문가 등 남은 3개월 동안 구성원 대표단이 논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제도 확정 이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 끝까지 제 몫을 다하는 대표단의 모습을 기대한다. 부디 구성원 대표단의 '권한'과 함께 부여받은 '의무'를 제17대 총장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세시봉

최우선의 가치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사람이 죽고 있다. 살기 위해 일하다 죽고 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올해 6월에는 한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카트를 밀다 숨졌다. 오늘로부터 딱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에는 택배 노동자가 배달하던 택배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빌라 복도에서 숨을 거뒀다.

사례를 집어 언급하는 것이 무색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 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노동자는 2,223명에 달한다. 하루에 6명이 넘는 꼴이다. 하지만 몇몇은 노동자의 죽음이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태도다. A 기업은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선혈이 남은 기계를 천으로 덮고 공장을 계속 가동했다. 또한 빵을 만들다 숨진 노동자 빈소에 위로품으로 빵을 보냈다.

노동자의 죽음을 뒤로하게 되는 이유는 편리와 성장이다. 우리는 이미 노동이 일군 발전에 기대고 있다. 몇 천 개가 넘는 식품 계열사 가게가 전부 사라진 길거리, 새벽 배송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환경 속에서 당장 변화하는 것이 어렵기에 현실 앞에서 타협한다.

그러나 죽음에 빗을 지며 굴러가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임금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고자수를 집계한 사고 만인율은 현재 0.4% 넘는다. OECD 평균인 0.29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안이 실현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현재보다 최대 17시간 늘어나며 일과 휴식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자연스레 사고율도 높아질 것이다.

현실 앞에서 개인은 고민하고 기업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판단을 거쳤는지, 스스로의 판단에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를 돌아보자. 편의점에 일상처럼 진열된 빵이 무엇을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로켓'처럼 빠른 것이 당연한 배송이 무엇을 연료로 삼는지 생각해야 한다.

실적과 편리함보다 사람이 중요한 분위기가 당연해져야 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의료일원화

현명한 결정을 향해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의료계는 본인 밥그릇 걱정, 대학은 이공-자연계열 학생의 자퇴율 상승을 걱정 중이다. 다만 정부가 의사 수 부족 현상의 주 해결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하며 길고 길었던 '의사 수 부족' 현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점점 찾아가나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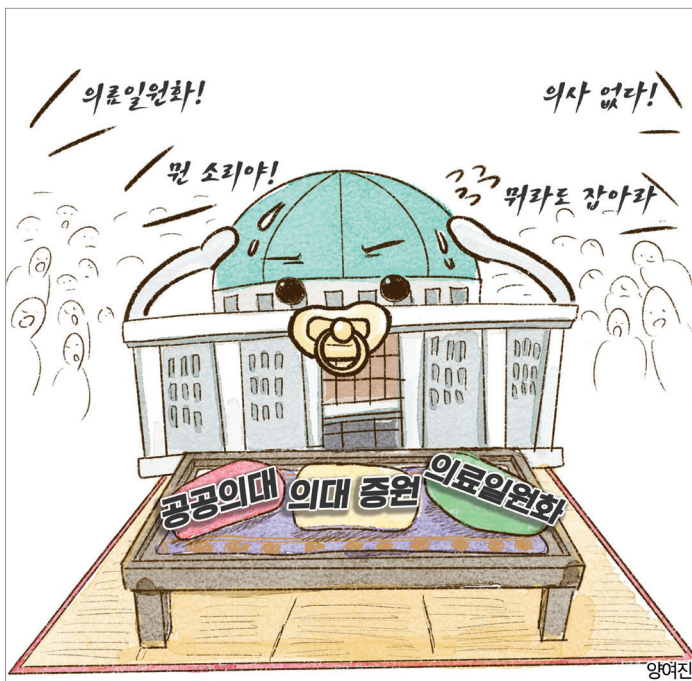
하지만 잊힌 공공의대부터 수시로 떠오르는 의료일원화 이슈까지 합이 되지 못한 의료체계 비전이 쏟아져 나온다. 충분한 고려 없이 막 뱉는 말들은 "아님말고"식의 담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듯 아무 의미 없이 제도가 제안되고 파기되는 것이 반복되는 논의에서 국민 건강의 사각지대는 방치된다. 기초지자체 10곳 중 4곳은 1시간 이내에 응급실 도

착이 불가하다. '진료 불가' 이유로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10대 응급환자가 사망했고, 소아과에서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의사 수가 적은 상황이다.

국민 건강 보장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장시간 따로 놀다 보면 의미 없는 토론만 지속된다. 더군다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 체계에 대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이권, 혹은 정치적 의도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권에 따라 문혔다 부활하는 제도의 논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의 확립에 모두가 힘써야 한다. 장시간의 논의로 의견은 많으나, 통일되지 못한 의료 비전을 서로 내세우는 국회는 아직 어느 것을 잡아야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돌잡이 주인공을 닮아있다. 성과 없는 논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는 서서히 결론을 완성해야 한다.



만평 국회의 돌잡이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